

러시아 냉동명태 직거래 중단되나

PBTF사 3차분 공급 무산, 부산서 구입 ... 황종국 군수 “제3의 시장 개척” 시사

‘고성태’ 브랜드화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는 고성군이 러시아 냉동명태 직거래 회사인 PBTF사가 3차분 공급약속을 지키지 않자, 부산 도매업체로부터 물건을 들여오고는 이를 PBTF사의 협력사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속여 물의를 빚고 있다.

〈관련기사 6면〉

고성군은 지난 8일 보도자료에서 “4월 7일 죽왕수협을 통해 PBTF사 협력사가 어획한 냉동명태 206톤을 구입해, 8일부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시판한다”며 “PBTF사가 4월 중순 이전까지 운반선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 협력선사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이 명태는 PBTF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인성실업’에서 사온 것으로 밝혀졌다. 인성실업은 부산지역의 대형 수산물 도매회사로 본사는 서울에 있다.

인성실업 수산부 이수영 부장은 지난 12일 전화통화에서 “4월 7일 죽왕수협에 판매한 206톤의 냉동명태는 우리 협력사인 ATIKA사의 MASTER 선박이 잡아온 것”이라며 “PBTF란 회사는 들어보지도 못했으며, 이번에 죽왕수협에 공급된 명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이처럼 러시아 직거래 회사인 PBTF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인성실업을 통해 냉동명태를 들여왔으면서도

보도자료에는 “PBTF사 협력사가 어획한 것”이라고 속였다.

이와 관련 고성군 관계자는 지난 11일 “PBTF사 회장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와서 수

용한 것”이라고 했다가, 12일 본지가 인성실업을 통해 들여온 사실을 알고 담당자와 직접 통화까지 했다는 사실을 밝히자 “열심히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며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 PBTF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직거래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까지 신뢰를 잃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황종국 군수는 지난 12일 고성군수협 임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제3의 시장 개척” 의사를 내비쳐 사실상 PBTF사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광호 기자

“민원인을 항상 가족같이 대해요”

간성읍 민원팀 친절서비스 ‘칭찬’

간성읍사무소 민원팀을 맡고 있는 강성일 민원담당과 최연옥씨가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친절하게 처리해줘 칭찬을 받고 있다.

최근 고성군청 홈페이지에 칭찬글이 오를 정도로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강성일 담당은 “친절서비스도 업무의 일부”라며 “민원인들을 항상 가족같이 생각하고 대하고 있다”고 했다.

최연옥씨는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 불편한 분도 종종 있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친절 서비스로 처리해 드리는 것이 나의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간성읍사무소 민원팀은 사전에 연락을 주면 주말에도 민원



친절 행정서비스로 귀감이 되고 있는 간성읍사무소 민원팀 강성일 담당과 최연옥씨.

처리가 가능하고, 민원신청자가 바쁠 경우 가정으로 배달해 주기도 한다. 박승근 기자

영동OA사무기

- 디지털복사기 □소모품판매
- 잉크젯 · 레이저 프린터 □팩스
- 복합기렌탈 □LCD프로젝터

681-7607, 010-3179-7607

구독료 납부 부탁드립니다

독자님께서 내주시는 소중한 구독료가 고성신문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성신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31일 창간호를 내보낸 고성신문이 어느덧 11호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성신문은 지난 2개월간의 무료 보급을 마치고, 이달부터 월 구독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번호 신문에 간지 형태로 구독료 ‘지로통지서’를 보내드렸사오니,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속하여 신문을 보지 않으실 독자님께서도 불편하시더라도, 본사에 전화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료 납부 제외 독자님

(※아래의 독자님은 지로통지서가 배달되지 않았으나, 혹시 배달된 경우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칼럼위원 및 시민기자
- ◇1년 선금을 내주신 독자님
- ◇은행 자동이체 중인 독자님
- ◇교환지 형태로 받아보시는 독자님
- ◇독지가 기증 독자님
- ◇고성지역 마을 경로당

주식회사 고성신문

신문구독 관련 문의 ☎033-681-1667